

전통 장(醬) 담그기 체험하러

순창군, 전통 장 문화학교
올해도 진행 1박2일로 진행
강천산 야간투어 등과 병행

올해도 순창군에 가면 전통 장(醬) 담그기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추장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순창군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전통 장(醬) 담그기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 장(醬) 문화학교를 올해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통 장 담그기 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제137호, 2018. 12. 27.) 전통 장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는 한편 확산을 위해 올해도 50여 개팀을 대상으로 전통 장 문화학교를 운영한다는 것.

군은 당초 전통 장 문화학교를 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운영 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며 먼저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전통 장 문화학교는 전국 초중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당일 또는 1박2일로 진행되며 운영 프로그램은 전통 장류 발효음식으로 요리된 기능인 집에서의 집밥체험과 장 담그기 체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 장 문화학교를 통해 순창에 다녀간 전국 초·중·고등생이 지난해만 2천여명으로, 프로그램 첫해인 2015년부터 5개팀 225명을 시작으로 연간 2천명을 돌파하며 순창의 대표 체험프로그램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해 순창에서 진행된 '전통 장 문화학교'.

군은 올해 장 담그기 프로그램 외에 강천산 야간투어, 섬진강 출렁다리 등 관광명소 트래킹과 승마, 카누 등 액티비티 체험활동, 농촌 문화 체험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역사와 문화를 함양할 수 있는 인문학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순창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참가자들이 느낄 수 있게 구성할 계획이다.

김재건 사업소장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소중함 우리의 전통 장 문화가 외면 받고

는 실정이 아쉽다"며 "전통 장 문화학교를 통해 자라나는 미래 동량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배우는 값진 경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전통 장 문화학교 운영에 장독대 분양행사로 전국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2월 하순 전통장 기능인들과 함께 장을 담가 장독대를 분양했으나 올해는 코로나 19로 행사가 취소된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천주교,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원 지속

마산교구, 구호성금 전달 · 광주대교구, 비타민제 등 기증

천주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마산교구장 배기현 주교는 지난 3일 오후 대구대교구청을 방문해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를 예방하고 코로나19 구호 성금을 전달했다.

광주대교구는 광주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건강을 위해 지난 1일 비타민제와 자양강장제 1500세트를 기증했다. 기증물품 분류와 포장 작업에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와 육현진 보좌 주교도 함께 했으며, 물품은 거점병원인 조선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시나 보건소 5곳,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졌다.

대전교구는 사회사목국을 통해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대교구 사회복지회에 손소독제 1020개와 마스크 1만600개를 전달했다. 대구대교구는 대전교구에서 지원한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대구, 경북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대구대교구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 대구대교구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난달 26일 대구·경북에 1억원씩 총 2억원을 기부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경북도지사에 전달한 기부금은 방역물품 지원, 긴급 구호물품 지급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대구대교구는 지역사회에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치료를 위해 교구 연수원인 꾸르실료교육관과 경북 칠곡군 소재 한티순교성지 피정의 집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대구대교구 이주사목위원장 이관홍 신부는 "대구대교구 이주민들을 위한 마스크 나눔을 위해 지난 2일 오후까지 전국 분당과 교구 위원회, 수도회, 단체 등 40여곳에서 마스크 7000여개와 손소독제 100여개가 도착했다"며 "이 물품들은 대구대교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2000여명의 이주민들과 난민 신청자들에게 대면과 택배로 전달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

국립무형유산원 · 만인의총

기념관 휴관 기간 22일까지 연장

문화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휴관 중인 전북 소재 국립무형유산원과 만인의총 기념관 휴관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달 6일까지 휴정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2주간 더 연장했다.

현재 관람객의 감염 예방을 위해 특별 방역을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휴관 기간 연기는 학교 개학이 추가 연기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가 연장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대응지침 등에 따라 현황에 맞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 휴관 기관 및 시설은 국립고궁박물관(서울), 덕수궁 중명전(서울), 창경궁 대운실(서울),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여주),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충무공이순신기념관(아산), 칠백의총(금산) · 만인의총(남원) 기념관, 해양유물전시관(목포 · 태안), 국립무형유산원(전주), 조선왕릉 내 역사문화관 등이다. /뉴스

동리따라 소리따라 '나도 귀 명창'

고창 동리국악당서 12월까지

고창군이 오랜 기간 선보여 왔던 전통 판소리 무대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나도 귀 명창'을 선보인다.

고창 동리국악당에선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마당 '동리따라 소리따라 나도 귀 명창' 공연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연다.

'나도 귀 명창'은 말 그대로 판소리를 듣는 관객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무대'다.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관객들에게 판소리 속에 흐르는 삶의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판소리의 정확한 의미와 뜻, 기존의 판소리 공연에서는 알 수 없었던 신재효 판소리 사설속의 의미 등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 만나게 된다.

먼저 이야기를 들려줄 진행자는 최고의 판소리 연구가인 최동현(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이 인문학적 해설을, 떠오르는 젊은 소리꾼 10명이 판소리 다섯마당 눈 대목 소리를 예술적 부분으로 각각 분담하여 진행한다.

고창이 판소리에 영향을 끼친 지역적 특징과 판소리의 핵심 및 사설 등 매력 을 드러내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준비되



어 있는 공연은 회원제로 진행된다. 회원 가입은 전화신청 또는 현장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무료다.

문의는 고창문화의전당(063-560-8041)으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6점 발표

남원시는 남원을 상징하는 콘텐츠를 반영한 상품성이 있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총 6점을 발표했다.



관광기념품 공모 대상을 차지한 '전통부채 세트'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출품된 총 78개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상징성, 독창성, 완성도, 활용성을 중점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작 4점을 선정하고, 온라인 대중심사를 거쳐 2개의 인기상을 선정했다.

▲대상에는 성춘향 이몽룡 디자인 '전통부채 세트'가 ▲최우수상은 '책갈피 시리즈'가 ▲우수상에는 '비선발의 춘향-향주머니'와 '오작교가 이어준 우리-여권지갑과 트래블백 세트' 등 2점이 ▲인기상에는 '티켓형 엽서'와 '모데미플 커뮤 매듭팔찌' 등 2점이 선정되었다.

남원시는 수상작 및 인기 상품 20여점에 대해서는 제90회 춘향제 행사장 내 기념품 판매부스와 춘향테마파크내 관광기념품판매점 진짜배기에서 시범 판매할 예정이며, 관광객의 호응이 좋은 상품에 대해서는 광한루원 경외

대상 - 성춘향 · 이몽룡 전통부채
최우수 - 책갈피 · 우수 - 향주머니

상가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재 남원시 관광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남원의 콘텐츠가 반영된 실용적이고 상징성이 있는 관광기념품이 많이 발굴되었다며, 이를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관광객에게 남원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